

【대담】

문학으로 읽어내는 ‘글로벌’ 만주

대담: 김재용(제7대 만주학회 회장)

진행: 정겨울(만주학회 기획이사)

일시·장소: 2023년 5월 26일, 강원대학교

정: 안녕하세요,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세션을 시작하며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선생님의 근황입니다. 아마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네 먼저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설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겨울 만주학회 학술대회 때 박선영 회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주학회의 제7대 회장이었기에 사실은 저보다 먼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신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께서 먼저 대담회를 시작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만주학회 첫 대담회의 문을 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만주와 관련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사회를 보시는 정겨울 선생님을 비롯해 그동안 국내에서 만주국 시기 문학을 공부하는 여러 선생님과 함께 매달 한 번씩 모여 사이 좋게 돌아가며 일본문학, 중국문학, 한국문학을 두루두루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하는 공부의 주

제는 다소 낯선 것일 수도 있는데, 바로 ‘만주국의 여성 문학’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개인적인 이유라면 저는 한국문학 전공자로서 한국문학 속에서의 만주를 봅니다만, 만주는 역시 동아시아 전체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만주국이라는 실체와 만주국 문학의 특성이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하에 일본문학, 중국문학, 한국문학 전공자가 다 같이 협업해서 만주국 문학을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여성 문학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이기도 한 ‘글로벌(Glocal)’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만주국에서의 일본, 중국, 한국의 여성 문학은 단순히 한·중·일 근대문학이나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글로벌’한 차원, 즉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되 지구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주국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관문을 통해서 ‘글로벌’한 시각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선생님의 만주 연구의 근간과 관련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좌중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한 번 씩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처음 만주 문학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혹시 특별한 동기나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한국 근대문학이라 근 40년 가까이 한국 근대문학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대략 20년 정도 되었을 때, 한국 근대문학가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당시 만주에 간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 만주를 방문했던 사람도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록 당시 만주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경험이 없는 작가 중에서도 만주와 관련한 문학을 창작한 사람이 다수였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처음에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근대문학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 실제로 만주국의 문학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한국 근대문학의 전체상(像)을 읽어내거나 파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한국 근대문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소설가, 시인 등으로 꼽히는 염상섭, 백석과 같은 사람들이 '당시 왜 만주로 이주했는가', 이기영, 한설야 등등 한국의 쟁쟁한 카프(KAPF) 문학가들이 '왜 만주를 소재로 하는 장편 소설을 다수 창작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또 '왜 만주를 여러 번 방문하고, 틈만 나면 만주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가'와 같은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만주를 방문하거나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만주를 언급하거나 연구하고자 한 것을 보며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상당히 특이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만주를 연구하지 않고서는 한국 근대문학 연구를 온전히 하기 힘들겠다고 더욱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한국 근대문학을 공부할 시기에는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근대문학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근대문학가들 대다수가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한국 근대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일본 근대문학을 공부하지 않고 한국 근대문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여겨 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근대문학과 중국 근대문학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실 이 문제 역시 별다른 지적 추상을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채호와 같이 당시 중국으로 망명한 작가들 역시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인 작가들에게 있어 일본은 '근대'라는 것을 고투하는 현상이었지만, 중국은 (때로는 '타협'도 있었지만) '망명' 혹은 '저항'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근대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중국 근

대문학 역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근대문학을 연구하면서 일본과 중국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 제
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눈에 너
무나도 잘 보이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만주'인가? 이것이 제
가 여태껏 한국 근대문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때 생각했던 문제이자 사실상 지금까지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 중국과 달리 만주라는 공간은 한국 작가들에게 있어 굉장한 상상력의
원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주는 왜 그러한가? 그
것이 바로 제가 만주 문학을 연구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
다. 사실 저는 아직도 만주 문학을 공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어떤 분명한
결론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중국과는 다른 만주의 특성이 어떻게 한국 근대 작가들의 창작에 있어 중요
한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은 만주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보
려고 했는지, 나아가 이들이 궁극적으로 읽어내려 했던 세계는 과연 무엇인지
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20년 전에도 저의 숙제였고, 지금
도 숙제이며, 앞으로도 숙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바로 제가
만주 연구에 입문하게 된 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연구 계기를 들으니 저 역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좌중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
피 김재용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만주 문학, 특히 만주의 조선인 문학을 연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성과는 여러 학술서와 논문들을 통해서도
발표되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그
동안 어떤 연구를 진행하셨는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며 특별히 고민하셨거나 강조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
으면 같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저는 원래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즉흥성이 생명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즉흥적인 분위기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더욱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야말로 그 배후에 숨겨진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대담회에 있어서 제가 미리 어떤 내용이나 답을 특별히 준비하지는 않았습시다만, 간략하게 그동안 제가 해왔던 작업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제가 출판한 책은 『만주, 경계에서 읽는 한국문학』입니다. 이 작업을 했을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근대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만주를 연구하는 분'과 '만주 연구를 안하시는 놈',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곤 했습니다. (웃음)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근대문학을 연구하면서 만주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동안 한국 근대문학과 만주를 공부하면서 왜 사람들이 만주의 중요성을 모르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제 주변에서 한국 근대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모아서 같이 출판 작업을 했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당시 어떤 분들은 저와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시고 글도 써주시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웃음)

그런데 이 작업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왜 '경계에서인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만주와 관련한 한국 근대문학가들은 대략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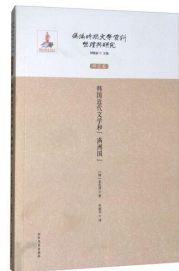
첫 번째 경우는 강경애, 최서해와 같이 상당 기간 만주에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염상섭이나 백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중간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해방 이후에 다시 조선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당시 여행이나 단순한 방문을 목적으로 만주에 간 것이 아니었고, 일정 기간 그곳에 거주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만주에 한 달 이상 머물지 않은 사람들, 요컨대 여행이라든가 방문이라든가 혹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청탁을 받고 만주에 갔던 사람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근거해서 『만주, 경계에서 있는 한국문학』(서울: 소명출판, 2014)의 기획은 기본적으로 ‘왜 어떤 사람들은 만주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반면, 어떤 이들은 단순한 방문이나 여행으로만 그치고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 데 있습니다.



이 책을 기획하면서 저는 한국 근대문학에서 만주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책의 출판이 한국 문학장(場) 속에서 만주의 중요성을 각성하는 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책은 출판 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국 근대문학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만주를 비롯해 만주국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한국 근대문학을 진지하게 연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만주 문학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각인시키는 일종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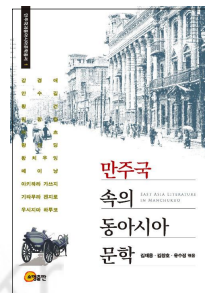
다음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중국의 『위만시기 문학 자료 정리 및 연구(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라는 총서에 수록된 『한국 근대문학과 만주국(韓國近代文學和“滿洲國”)』(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7)이라는 책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주를 연구하며 편집을 맡은 책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쓴 책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엉뚱하게도 제가 한국어로 썼던 논문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모아 중국에서 책으로 출판이 된 것이 바로 『한국 근대문학과 만주국』입니다. 이 책이 지니는 의미나 중요성은 내용적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왜 오늘날 중국에서 소위 중국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인 연구자의 논문을 이렇게 엮어



서 번역서로 출판하려 하는가', 또한 '왜 중국에서 만주국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만주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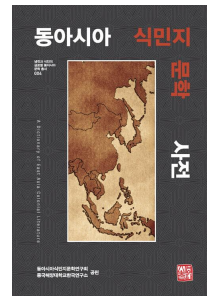
이 책은 사연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국내에서 만주국 문학 연구와 관련하여 좋은 책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만주국 문학과 관련하여 쓴 논문이 많이 있었기에 향후 이것들을 한데 묶어서 책을 내려고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에 차지 않았고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판이 미뤄지고 있었는데, 마침 당시 중국 내에서는 만주국 문학 연구의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는 화동사범대(華東師範大)의 류샤오리(劉曉麗) 교수가 만주국 문학과 관련한 글로벌 총서를 내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한국에서 만주국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저와 연락이 되었고, 얼떨결에 제가 출판을 수락하며 결국 제 논문을 엮은 번역서가 중국에서 먼저 출판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내용이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 근대문학과 만주국』에는 제 초기의 연구논문들이 수록된 것으로 만주 문학과 관련한 제 초기 연구 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중국에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근래 국내에서 진행한 작업은 일본문학을 전공한 숙명여대 우수정 선생과 중국문학을 전공한 강원대 김창호 선생과 함께 합작하여 『만주국 속의 동아시아 문학』(서울: 소명출판, 2018)이라는 책을 출간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최소한 만주국의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저처럼 한국 근대문학을 공부했거나, 혹은 일본이나 중국 근대문학을 공부했는지 여부를 떠나 궁극적으로는 만주국의 한·중·일 문학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주국 문학을 연구하려고 한다면 선계(鮮係), 일계(日係), 만계(滿係) 이렇게 나누어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한데 모아서 '만주국 문학



장(場)이라는 틀 속에서 읽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만주국 문학장' 안에 존재하는 미묘한 지점들을 읽어내야지만 만주국 문학 연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출간하며 했던 생각은 '우선 우리가 만주국 내 한·중·일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해서 같이 읽고 소개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된 책이 바로 『만주국 속의 동아시아 문학』이라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책은 바로 최근 출판된 『동아시아 식민지문학 사전』(서울: 소명출판, 2022)이라는 책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한국 근대문학과 만주를 공부해 오며 저는 동아시아라는 관점이나 시점이 없으면 한국 근대문학은 물론이고 특히나 만주국 문학 전체상(像)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오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15년 전쯤 저는 일본, 중국, 대만에서 식민지 문학을 연구하는 선생님들과 연락해 같이 모여서 공부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각국에서 열심히 각자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당시 저는 만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식민지 문학을 국민국가 단위의 시각에서 연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임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후 해마다 한 번씩 정기 토론 및 포럼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10년, 즉 10회를 맞이했을 때 앞으로 상호 간의 더욱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도달했고, 이에 『동아시아 식민지문학 사전』이라는 것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연구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일본 제국주의 관할하에 있던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비교도 있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이른바 만주국 문학에 대한 독해가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가능해졌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책의 목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안에는 조선이나 대만의 작가들도 있지만, 저 자신이 가장 공을 많이 들였고 또 빛나는 대목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만주국의 중국인 작가, 만주국의 일본인 작가, 만주국의 한국인 작가, 이른바 만주국 내 만계, 일계, 선계 작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서술에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서술이 단순한 작가소개에 그치지 않고,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각국 작가들과 동아시아 문학과 '관계성'에 대한 서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주국의 대표적인 중국인 작가 구딩(古丁)의 경우 그가 당시 일본문학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반면 한국문학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나아가 중국 관내(關內) 지역의 문학과는 또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같은 문제들에 관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작업은 만주국 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이 출판되면서 한국 근대문학과 중국, 일본문학과 상호관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15년간 만주 문학을 연구하며 달성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작업의 한 일단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 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네요. 앞서 드린 질문들은 선생님께서 그동안 진행해 오셨던 만주 연구의 대략적인 내용 및 성과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좌중에는 오랫동안 만주 관련 연구를 해오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막 만주 연구를 시작하신 신진학자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께서도 항상 고민하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어떠한 방법과 관점으로 만주를 연구할 것인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만주 연구를 하면서 지향해야 할 연구 시각이나 방법은 무엇인지, 연구자로서 갖춰야 할 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혹시 제안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연구 시각에 대해 제가 특별한 방법을 논하기보다는 그동안 제가 경험한 연구 과정에서 발견했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 역시도 앞으로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인데, 바로 만주국 혹은 만주국 문학을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지구적인 시각에서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제가 최근 만주국의 여성 문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제가 그동안 만주 문학을 동아시아적인 시각에서 공부하며 경험했던 것들, 혹은 문제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만주국 혹은 만주국 문학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연구하게 되었을 때 발생한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동아시아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학계의 생태에 대해 더 잘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제가 본 바로 미국 동아시아학계의 가장 큰 특징이자 미국 동아시아학이 현재 한국, 일본, 중국에 비해 가지고 있는 큰 이점 혹은 유리한 고지는 바로 동아시아를 하나로 묶어서 연구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학은 사실 냉전 시대 혹은 그 이전에도 일반적이었던 지역학, 즉 에리어 스터디(Area Study)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그 범위나 방법이 크게 발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인문학 영역에서 미국의 동아시아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이미 한국이나 일본, 중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 만난 동아시아 학자 대부분은 자신의 전공이 한국, 중국, 일본 심지어 만주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전공 내용을 비롯한 그 주변 된 동아시아 전체에 관한 공부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자신의 전공을 기반으로 여러 영역에서의 다양한 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아시아학계에서는 동아시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아우르는 연구 서적이 많이 출판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연구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미국의 동아시아학자들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아시아학회를 비롯해 각종 동아시아학 관련 기관들을 연결해 주고 있는 중요한 접점은 바로 영어라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즉, 영어라는 공통된 언어가 있기에 사실상 미국 동아시아학계에서는 이러한 협업들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느낀 의문점은 과연 미국 동아시아학회에 참석하는 연구자들이 과연 동아시아학을 연구하는 올바른 자질과 소양을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제 발언을 다소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국에서 진행되는 동아시아학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는 연구의 내용이나 깊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영어, 즉 언어적인 기술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학술대회에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해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 미국 동아시아학회로부터 저는 마치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언어 능력을 겨루는 경연대회가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아시아학회에 참석하면 간혹 실제로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영어로 미리 준비한 내용을 외우다시피 해서 발표를 하고, 기계적으로 토론하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학술회의가 '과연 세계 인문학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아시아학이 영어라는 언어를 매개체로 같은 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의 동아시아학 연구는 완전히 각개전투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먼저 언어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데, 저 역시 15년 동안 <동아시아 식민지문학 연구학회>를 거쳐오면서 직면했던 가장 큰 난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 실력이 뛰어난 연구자들을 초청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저는 기필코 반대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이고(웃음), 다음으로는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동아시아의 동아시아학 연구자들이 서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인식은 냉전 시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학이 우리(동아시아 지역) 동아시아학계에 알게 모르게 주입한,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묘한 가스라이팅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틀에서 더더욱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동아시아 식민지문학 연구학회> 모임을 할 때 공식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역으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며,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학회에 참석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는 바입니다. (웃음) 그러나 저는 영어를 잘한다 해도 동아시아학 연구자라면 한국어나 중국어, 일본어 이 셋 언어 중 한 가지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때로는 발표자를 제외하기 힘든 그런 난관도 있긴 합니다. (웃음)

그런데 실제로 <동아시아 식민지문학 연구학회>를 진행하다 보면 언어적 난관이 많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한·중·일 3개국 언어를 모두 섭렵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고, 때로는 동시통역이라는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처음 동시통역을 시도했을 때는 상당히 어설피고 어색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쌓이다 보니 이제는 전보다 소통도 더 자유롭고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동아시아 식민지문학 연구학회>는 영어라는 매개체 없이도 동아시아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산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동아시아 식민지문학 연구학회>에 미국 동아시아 학자들이 참석해서 가장 놀란 것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회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동아시아학계에 있는

학자들이 한국, 일본, 중국에 있는 동아시아 연구자들이 모여 협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활동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야말로 매우 추상적인 미국 인문학의 이론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한계에 직면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만주국, 만주국 문학을 동아시아라는 틀에서만 보지 말고 (물론 동아시아를 통해 보는 것도 백찬 일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지구적'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연구 시각이나 태도를 갖추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정: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한 연구 시각 및 태도를 만주 문학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혹시 선생님께서 진행하셨거나 혹은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한국 근대문학 전공자로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저의 연구 영역에 적용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주나 백석, 염상섭과 같은 문학가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작품을 통해 읽어낸 세계는 기본적으로는 만주와 관련된 삶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세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당시 외국의 문학이나 이론과 관련한 서적 대부분은 모두 일본어로 번역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본어로 번역된 책들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과 사상을 섭취하였고 이를 토대로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키워나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들이 당시 세계를 바라보았던 안목은 최소한 현재의 저와 비교해서 훨씬 더 넓고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백석과 염상섭, 운동주를 그저 한국문학사에서 잘 알려진 문학가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세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면 한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적 시각, 틀이라는 것도 여전히 매우 협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를 넘는, 보다 더 ‘글로벌’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문학가인 운동주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운동주는 여러분이나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들어보고 많이 배워왔던 문학가입니다. 그러므로 대다수 사람은 그를 한국의 근대문학가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주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사실상 북간도에서 태어나 자랐고 죽어서도 북간도에 묻힌 인물입니다. 운동주의 평생을 훑어보면 사실상 그가 서울에서 살았던 것은 연희전문학교에 다녔던 약 4년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후 운동주가 평양에 잠시 있었던 적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그가 한반도에서 살았던 시간이라는 것은 대략 6년이 채 안 됩니다. 요컨대, 운동주는 스물일곱 평생에서 거의 사분의 일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만 한반도에 머물렀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히려 운동주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북간도와 만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한국, 그리고 일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운동주는 북간도에 있는 조선인 이민 3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민 3세대인 운동주를 여전히 한국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는 한국에서 만주로 이주한 매우 독특한 ‘디아스포라’이며, 이것이 바로 운동주라는 인물을 규정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민족주의 교육과 강고한 국민국가 시스템이 강조되었고, 이 과정에서 운동주를 그저 한국의 민족시인이자 저항 시인으로만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운동주라는 인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회를 막아버린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운동주라는 인물을 제대로 파악하려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그와 같은 이민 3세대의 정체성 속에서 동아시아를 조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운동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운동주의 대표작인 「별 헤는 밤」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헤는

밤」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줄 정도는 외울 수 있는, 그만큼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 시를 보며 조선인 이민 3세대로서의 운동주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에 대한 해석 역시 거의 불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시를 한국의 저항정신을 담은 시로 해석하곤 했던 기존의 해석 방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약 40년 동안 한국 근대문학 연구를 해오면서 보니 이 부분은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석과 염상섭의 경우입니다.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시대를 1870년부터 1945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이 제국주의 전기 시기이고, 이후부터 1945년까지를 제국주의 후기 시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백석과 염상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국주의 전기, 후기 시기의 차이점과 특징을 매우 잘 간파한 사람들이라 평가합니다. 요즘 들어 더 느낍니다만, 예전에 저는 백석이나 염상섭 볼 때 기껏 해 봤자 동아시아의 범주까지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이 당시 읽었던 세계, 독해했던 세계라는 것은 그 범위가 훨씬 넓고 방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최소한 이들은 현재의 저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은 제국주의 시장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잘 간파한 동시에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제국주의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제국주의 시대 가운데서도 1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들이 실제로 그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자신의 현실과 자기의 역사를 독해하는 삶을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앞으로 염상섭과 백석, 운동주를 읽어내고자 한다면 이른바 지구적인 시각, 글로벌 히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기반이 없이는 이들에 대한 해석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제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에도 다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 염상섭이나 백석, 윤동주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비롯해 20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들에 대응했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만주국에 있으면서 만주를 매개로 그려내고 이해했던 제국주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지와 같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만주국의 여성 문학 연구였습니다.

1차 대전에 패배한 제국주의 국가였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당시 대표적인 선진국으로는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사이에는 또 다른 차이들이 존재하겠지만, 제 식견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나 알제리, 베트남 등지를 통치하면서 항상 불러들이는 담론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문명화’ 개념입니다. 물론 문명화 개념에 관해서 프랑스와 영국을 비교한다면, 전자는 훨씬 더 직접적이었던 반면 후자는 비교적 간접적인 방식을 택했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두 국가가 문명화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소위 식민지를 문명화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해당 지역에서 가부장제의 억압 속에 신음하고 있는 여성들을 구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베일을 써야 하고 일부다처제라는 관습 속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을 구해낸다는 것이 바로 이들이 주장하는 문명화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화라는 것은 프랑스인이나 영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전적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식민지 여성의 문제는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문명화라는 미명 아래 이러한 작업이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백인의 짐’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논리가 만주국이나 동아시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고, 20세기 동아시아 식민지를 형성했던 일본 역시 이와 같은 담론을 구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일본은 여성에 대한 담론에 있어서는 기껏해야 '현모양처(賢母良妻)', 일본식으로 하면 '양처현모(良妻賢母)'라는 개념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공하는 한국 근대문학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의 근대문학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서구의 다른 문명화 담론은 엄청 많이 구사하면서도 여성과 관련한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프랑스나 영국과는 현저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양처현모'라는 개념을 가지고 조선이나 대만, 만주국의 여성을 구해내고자 한 것인가? 이는 물론 어렵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 비교해서 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양처현모'나 '현모양처'란 개념 자체도 매우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대만이나 조선, 만주국에서는 그보다 더 앞선 시기에 이러한 개념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인들이 동아시아에서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양처현모'라는 담론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명분을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단순히 만주국의 문학을 연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만주국의 여성 문학 속에는 어떤 담론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당시 만주국의 작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혹은 당시 일본을 떠나 만주국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 여성 작가의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다면 저는 훨씬 더 흥미로운 만주국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만주국 문학 연구 자체도 기존의 한국, 일본, 중국문학의 '연장'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만주국 문학장' 자체가 '동아시아 문학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장(場)'이라는 개념으로 만주국 문학을 독해하는 것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 특히나 일본의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단면들을 밝혀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입니다.

정: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연구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이 많습시다만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드릴 수는 없기에,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여쭙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운동주, 백석, 염상섭과 같은 작가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언급 해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만주관(滿洲觀)'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김: 사실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는 큰 과제 중 하나이지만 그동안 제 나름대로 만주 문학을 연구해오며 여러 작가의 작품을 읽다 보니 이들의 '만주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들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만주에 진심인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만주를 그저 풍경이자 장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만주에 진심이었던 사람 중에서도 각자의 내공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백석과 염상섭 같은 경우에는 만주에 대한 진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 대한 내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최근 제가 연구하고 있는 작가가 염상섭, 백석, 운동주 이렇게 세 사람인데 이들에게 있어 만주는 풍경이나 장식이 아니라 자기 삶과 문학에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공이라는 것은 만주라는 것을 한국문학과 동아시아와 세계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독해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 세 사람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들과 같이 만주에 진심인 동시에 만주를 통해 세계를 꿰뚫어 보았던 사람들이 더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선생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만주 조선인 문학을 연구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근현대문학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만주 문학의 영향 혹은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요. 요컨대, 문학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만주 문학이 가지고 있는 학술적 의의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 제 앞세대에 만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만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개척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관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저는 만주를 '복합적인 공간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만주를 '저항의 공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만주에는 꼭 저항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만주에 있었던(방문했던) 한국 근대문학의 작가 중 일부는 그곳에서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 근대화 담론에 더욱 심취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주를 무조건 저항의 거점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주에 깃든 저항정신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주에는 분명히 한국 근대문학가들의 저항정신을 반영하는 부분들 역시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이기영의 소설 『처녀지』와 관련해 근래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한국 근대문학 연구자들은 이기영의 『처녀지』 역시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먼저 연재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왔습니다. 『처녀지』의 창작시기를 살펴보면 당시 한국에서 발행되었던 신문으로는 대표적으로 『매일신보』와 『경성일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신문을 모두 살펴봐도 이기영의 『처녀지』가 연재되었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영의 『처녀지』는 신문에 연재된 것이 아니라, 작가가 본래부터 단행본의 형태로 출판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략 이삼 년 전쯤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학자 한 명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바로 최근에 만주 문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읽고 있는 『만선일보(滿鮮日報)』(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42년도 발행분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만)의 1944년도 발행본입니다. 중국 측 선생님도 우연히 헌책방을 검색하다가 1944년 중 이틀 치 분량의 『만선일보』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기에는 이기영의 『처녀지』가 실려있었습니다. 이는 아주 대단한 발견이었는데 그동안 한국 근

현대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작품이 국내 신문에 실렸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작가가 원래부터 단행본으로 출판했다고만 생각을 해왔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만선일보』의 페이지가 발견되며 이기영의 『처녀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한국에서 발행되던 『매일신보』에도 한글로 쓴 작품을 충분히 연재할 수 있었음에도 왜 이기영은 굳이 만주에 있는 『만선일보』에 『처녀지』 작품을 연재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면은 만주라는 공간이 한국의 문학가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저항의 제스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당시 이기영은 『처녀지』라는 작품을 『매일신보』에 싣기는 싫었고, 그렇다고 해서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것도 별로 탐탁지 않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만선일보』에 『처녀지』 작품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만주에 있는 조선인 독자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만선일보』는 1942년 이후의 자료들이 발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부분들이 밝혀지면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만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주로 두 가지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쪽은 앞서 말한 저항의 공간으로서, 다른 한쪽은 이와 반대되는 협력의 공간으로서 만주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한국 근대문학에서 만주라는 것은 사실상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요컨대, 만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저항도 있었고, 협력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이 제창한 동양 담론을 비롯한 다양한 담론들이 서로 얽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만주를 쉽게 정의하고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 동시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지점은 만주라는 것이 이

렇게 복잡하고 복합적인 것(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도 대략 2~3년 전의 일입니다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명해내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앞서 언급한 운동주와 같은 작가들에 대한 재해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 백석과 운동주의 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한국 근대 시문학사에서 이들의 등장은 굉장히 빛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를 비롯해 여러분의 세대는 냉전 시대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요새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운동주의 「별 헤는 밤」만을 배워왔습니다. 그러기에 백석이라는 시인은 잘 모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동주는 「별 헤는 밤」이라는 작품을 쓸 때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작품을 적극적으로 참고했습니다. 백석의 시를 거의 표절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백석의 시를 오마주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일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제 말이었던 1941년 4월, 백석은 한글로 된 마지막 문학잡지였던 『문장(文章)』 마지막 호에 자신의 시 「흰 바람벽이 있어」를 발표합니다. 사실 이 시는 백석이 만주 신경(新京)에 머물면서 썼던 시입니다. 당시 서울에서 연희전문학교의 졸업을 막 앞두고 있었던 운동주는 이 시를 보고는 매우 감동합니다. 자신이 평소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백석 시인이 지금 만주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만주에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생각하며 운동주는 만주에 대한 감정이 북받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운동주가 써 내려간 시가 「별 헤는 밤」입니다. 그래서 「별 헤는 밤」에는 북간도의 풍경이 나오고, 그곳에 계시는 어머니의 형상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상 운동주의 「별 헤는 밤」은 백석의 시 「흰 바람벽이 있어」에 대한 '화답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두 사람 모두가 시 속에서 만주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는 사실상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세대의 경우에는 백석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저 운동

주의 「별 헤는 밤」만을 따로 배웠고, 이러한 방식이 지속되다 보니 해당 시에 얽힌 내막이나 그 앞뒤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그만큼 만주국의 문학이라는 것이 한국 근대문학 연구에서 도외시되었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윤동주와 같은 작가의 시 한 편 역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별 헤는 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자고 아마 몇 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자리가 아니니 넘어갑시다. (웃음) 아무쪼록 한국 근대문학에서 만주라는 것은 여전히 할 이야깃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20년 가까이 만주 문학을 공부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저에게 아직도 만주를 연구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만주는 공부하면 할수록 더 흥미로운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세계도 많이 보이고요. 이런 점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아직도 만주를 공부하냐고 다시 묻는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만주국 문학 및 문화를 연구할 때 ‘동아시아 문학장’ 혹은 ‘문화장’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만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만주 문학이 제공할 수 있는 (동아시아적) 사상적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이것이 인문학 연구에 지니는 새로운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혹시 특별히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제가 한국과 일본의 근대문학, 혹은 한국과 중국의 근대문학과 같이 어느 한 지역 문학과와의 관계성만을 연구했다면 아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선은 가지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

컨대, 우리가 현재 '글로벌'이라고 부르는 시각을 향유하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스스로가 이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만주를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시선의 복합성, 광폭함은 바로 만주가 지니는 '글로벌'한 측면에서부터 얻은 일종의 자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저는 반드시 만주 문학 연구를 하지 않았고 해도 다른 연구를 하며 잘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스스로가 좀 더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가 만주를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학자로서 일종의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정: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쭙보고 싶은 질문은 만주 연구의 미래 혹은 지향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만주라는 공간은 사실 한국 근현대문학을 비롯해 역사, 사회학 등 다양한 학제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공간으로 인식, 연구되고 있습니다. 본 질문은 오늘 대담회의 주제와도 다소 상응하는데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만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가야 하는지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을 청하고 싶습니다.

김: 사실 제가 만주 연구의 미래라는 것을 논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만주 연구의 필요성 혹은 중요성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다음 대담자인 노기식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전근대 시대에서 '세계'라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천하'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 즉 동아시아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부터 만주는 오랑캐의 땅이자 만주족들이 지배하던 영역으로 인식되어 주로 동아시아라는 범위에서만 논의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 만주는 제국주의 담론과 연동해서 이해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글로벌'한 것들, 지구적인 시각에서 만주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주를 연구하는 분들은 최소한 좀 더 지구적인 시각에서 만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많았기에, 최근

에도 계속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 다음으로는 '만주학회'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만주학회의 제7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만주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요. 아울러 만주를 연구하는 후학들, 신진연구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 사실 제가 만주학회에 이바지한 바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일하게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아마도 만주 연구에 있어서 '문학' 영역을 끌어왔다는 점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학을 끌고 들어왔다는 말이 다소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만주학회가 주로 사학이나 사회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상황에서 문학 연구가 만주 연구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는 세대입니다. 오늘 현장에는 많은 젊은 학자분들도 계시지만, 한국문학을 비롯해 일본, 중국 문학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의 협동이 앞으로 만주 문학 연구의 빛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이런 연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모일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제가 만주학회에서 이런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점이 그래도 학회를 위해 제가 한 작은 기여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 네 감사합니다. 사실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디다만,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만주 문학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학술적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신지요. 그리고 만주 문학 연구가 지니는 학문적, 사회적 의

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 이제 마지막 말씀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사실 제가 만주학회에 들어온 것은 동아대 한석정 교수님과의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역사비평』 편집위원을 맡고 있어서 한석정 교수의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책의 서평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연으로 미국에서 우연히 한석정 선생을 만나 이를 언택거리 삼아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석정 선생께서 저에게 만주학회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고 그때부터 저 역시 학회 활동에 참여하며 만주학회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 만주학회에 입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만주학회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소득은 바로 저와 다른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저는 아주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교류하면서 학술적으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는 다른 데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기식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전근대 만주 역사에 관해서 많이 귀동냥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대를 연구하시는 역사학, 사회과학 분야 선생님들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사석에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역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에 있어서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비록 얼떨결에 만주학회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참 잘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제가 계속 미루고는 있지만, 앞으로 제가 만주국 관련 서적을 내게 된다면 그 책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었던 많은 영감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 질문에 답변해주신 김재용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저희 역시 만주 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많은 질문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혹시 좌중에 계신 선생님 중에서 꼭 하시고 싶은 질문이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분 정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휘탁: 안녕하십니까. 한경대 윤휘탁입니다. 저 역시 만주학회의 창립 멤버로서 오늘날 우리 만주학회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김재용 전임 회장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주학회가 발전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김재용 전임 회장님께서 엄청난 만주 문학 사단을 이끌고 만주학회를 접수하셨습니다. (웃음)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만주학회가 비로소 ‘복합 학문 연구’를 지향하는 학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부터 만주학회가 기하급수적인 확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김재용 전임 회장님께서 연구 인원을 비롯해 국내 학문 분야에서의 네트워킹 확산 등과 같은 측면에서 정말 큰 공헌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부분은 만주학회 회원분들 모두가 다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 역시 만주학회의 전임 회장으로서 김재용 전임 회장님께서 학회를 위해 쏟으신 노력과 공헌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정말 힘찬 박수로 김재용 전임 회장님의 공헌에 대한 답례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정: 윤휘탁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대담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김재용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대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선생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연구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동시에 앞으로 만주 연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김재용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